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향 주

2013년 8월

〈국 문 초 록〉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향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이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일반인문계고등학교 17개교

중 10개교에 재학 중인 남(435명)·여(499명)학생, 총 93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박지원(1983)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거로 윤혜정(1985)이 부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효능감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예비척도를 김아영(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박완성(2003)이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질문지’를 고등학생들에게 맞게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변량분산분석,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가설은 유의수준 ‘ $p < .05$ ’의 기준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수준도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특히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아 스스로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신장시켜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또한 부모의 지지는 고등학생들에게 유능감을 향상시키고 기능적인 진로사고를 하도록 도와주어, 진로준비행동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지지가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효능감을 신장시키고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취업준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정보수집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도 향상됨을 의미하며, 특히 부모의 칭찬과 격려, 부모의 직업역할모델링은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을 제외한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특히 ‘정보수집활동’과 ‘진로탐색활동’에서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증진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써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고등학생들이 진로발달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친구, 어머니, 아버지 등, 의미 있는 타인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가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개인내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긍정적인 주변 환경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고등학생의 진로준비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주목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조력을 지각하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모교육이나 진로상담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 알맞은 상담과 그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II. 이론적 배경	7
1. 사회적 지지	7
2. 자기효능감	12
3. 진로준비행동	17
4.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20
5.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26
III.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도구	31
3. 연구절차	34
4. 자료처리 및 분석	35
IV. 연구결과 및 해석	36
1. 표본특성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36
2.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49
3. 가설검증	51
V. 논 의	68

VI. 결론 및 제언	73
1. 결론	73
2. 제언	75
참고문헌	76
Abstract	85
부 록	89

표 목 차

표 1. 사회적 지지 개념의 분류	9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비교	30
표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2
표 4.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3
표 5.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4
표 6.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37
표 7.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40
표 8.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42
표 9. 친구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44
표 10.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46
표 11. 진로준비행동 요인분석	48
표 12.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50
표 13.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	53
표 14.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	54
표 15.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	55
표 16.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57
표 17.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58
표 18.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59
표 19.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61
표 20.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63
표 21.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65
표 22.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66
표 23.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67
표 24. Scheff 집단 간 차이 비교	91
표 25. 남/여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92
표 26. 일변량 분산분석을 통한 학년 간 평균 비교	93

그림 목 차

그림 1.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의 차이	14
그림 2. 자기효능감의 정보원과 그 기능들과의 관계	16
그림 3. 어머니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62
그림 4. 아버지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64
그림 5. 친구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65
그림 6.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6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을 구성해가야 하는 삶의 주체로서, 인간에게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인생과업 중 하나이며, 이러한 선택들 중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대인관계 등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급변하는 현실에서 직업의 가치관 뿐 만 아니라, 직업세계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며,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전망 또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더욱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박지은, 2005, 재인용).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직업요구 조건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선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이현림, 2000).

Tolbert(1980)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으며, 이재창(2000)은 스스로 선택한 진로에 따라 능력 발휘의 기회, 주거지, 교우의 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며, 진로선택의 문제는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를 통하여 직면하게 되는 전 생애적 발달 과제로, 그 결정적 시기는 발달 단계상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청소년기, 즉 고등학교 시기라고 할 수 있다(박영신·김의철·민병기, 2002; 박완성, 2003; 김수리, 2004; 이광자, 2005).

청소년기는 직업준비 시기으로써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꿈꾸는 다양한 직업(ex: 연예인, 의사, 프로그래머, 판·검사, 선생님 등)을 탐색하고 진로선택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며, 특히 진학, 취업, 직업선택 등이 요구되는 청소년기는 형식적인 학교교육의 마지막인 고등학교 시기여서 더욱 중요하다(지이레, 2010, 재인용). Crites(1978)는 청소년기는

직업세계에 대한 관찰과 구체적인 직업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시기로,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성 설정,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획득과 계획수립, 직업선택에 대한 일관성 등의 특징을 갖는 시기라고 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이 중요한 이유로 이현림(1998)은 고등학교 시기가 지금까지의 보호적·의존적 범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로 적응해 나가는 시기일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 그리고 진로결정이 일회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의 적응 등 그 이후까지 연장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로지도의 목표도 독립된 인간으로 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 준비, 진로방향 정립이라 했다(박지은, 2005, 재인용).

Super와 Ginzberg(1990) 등 진로발달 이론가들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학교 졸업 후에 직면하게 될 현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들의 진로계획은 잠정적이며, 탐색적이라고 했다. 김충기(1989)는 고등학교를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진학을 위한 진로탐색단계에 해당되고,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완성교육인 진로준비단계에 해당된다고 했으며, 김계현(1995)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교육현실에서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보다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진로지도를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진로준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명실(2006)은 고등학생들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또는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단순히 학업성적이나 성장배경, 부모의 권유 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대학진학 후 전공과 적성 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 그에 따른 진로불안 등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갈등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주제들은 주로 개인의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에 관련되는 사항(Fuqua, Blum, & Hartman, 1988; Winer, 1992)인 반면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behavior)이나 진

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 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현장에선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오고 있으며, 김봉환(1997)은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preparation behavior)이나 실천행위(implementation)들을 직접 해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즉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본다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최신 정보를 접해 보는 것과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진로와 관련된 사전 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박완성, 2002). 이처럼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인지나 태도적인 부분이 아닌 행동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김봉환, 1997).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하여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Chope, 2001; 박지은, 2005).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절실히 필요하다(한수현, 2003). 왜냐하면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각이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며, 이를 연구변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하였고(Astin, 1984; Lent, Brown & Hackett, 1994; 박지은, 2005, 재인용) 선행연구들에선 진로 미결정과 비 탐색의 원인이 사회적 지지가 미흡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봉환, 1997).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 의미 있는 타인으로 부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등,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발달시켜 가는 일반적 평가를 말하며(Procidano & Heller, 1983),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는 개인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진로준비행동과 이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지지는 상호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욕구충족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직·간접적으로 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송재영, 2003), 특히 개인 외적인 요인 중 부모와 친구의 지지는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왔다. 따라서 부모, 친구에서 확장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적응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기제로서,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오승록(2008)은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했으며, Young(1994) 등은 부모가 진로관련 행동, 목표 지향적 행동을 모델링 해주고 진로관련 학습경험을 활발히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제1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수리(2007)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환경적 조력 중 부모지지는 사회적 장애물들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항하는 완충물로써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진로행동 및 전반적인 발달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진로에 부모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금명자, 2003).

진로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제시된다(Betz & Hackett, 1981; 이은경, 2003; 김선중, 2005; 조명실, 최경숙, 2007; 김경옥, 2009; 지이레, 2010).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Bandura, 1986)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다(Kush & Cochran, 1993; O'Brien et al, 2000).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 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포부(Bandura, Barbaranelli, Vittorio-Caparara & Pastorelli, 2001), 진로흥미(Lapan, Adams, Turner & Hinkelman, 2000), 진로선택(Lauver & Jones,

1991), 진로성과 기대감(McWhiter, Crothers & Rasheed, 2000)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로 보았으며,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했다. Lent, Brown, Hackett(1994)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설명하면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요소들과 성(性),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흥미와 진로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진로발달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양경숙(2004)은 자기효능감이 현재 진행 중인 행동 뿐 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는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은경(2001)은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작업도 특정맥락 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행동과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정서적·심리적·경제적 그리고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직업적 추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진로발달과 진로지도 분야에서 자발적인 인간심리 특성의 하나인 자기효능감이 진로행위에서 지니는 역할을 규명하는 노력은 선행연구 논문(Lent, Brown & Larkin, 1984; 신동미, 1999; 이기학, 이학주, 2000; 이은경, 2001)에 나타난 것처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이기학, 이학주, 2000), 환경 변인으로써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조명실, 2006; 이현진, 2009; 전현진, 2010; 지이레, 2010). 따라서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에 있어서 인지나 태도 부분의 향상 뿐 만 아니라 준비행동(preparation behavior) 및 실천행위(implementation)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이들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과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설 1.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및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지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또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 시키며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Cassel(1974)은 환경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면 인간은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이런 조건에서의 지지집단은 해로운 신체적·심리적 결과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stress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 사회 심리적 환경이 주된 변인으로 연구되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기원은 Durkheim(1970)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에세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연숙 등, 2001, 재인용). Cobb(1976), Caplan, Killilea, 그리고 Abrahams(1976)가 논문제목으로 사회적 지지를 저술하면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Brown & Hanis, 1978; Heller & Swindle, 1983; Leavy, 1983).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 간호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도구개(1984). Cohen & Hoberman(1993)은 사회적 지지를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자원을 일컫는다고 하며 광의적 개념으로 보았으며, 송재영(2003)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친구·이웃·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송종용과 원호택(1988)은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사회

적 지지를 표현하며,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원숙(1995)은 사회적 지지 개념을 기본적 욕구충족, 지지적 행동, 기능적·구조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 욕구충족은 개인적 목적을 성취하거나, 상황적 요구에의 대처능력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진 어떤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Caplan, Cassel, Core(1974)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사회적 욕구 즉 애정, 존중, 승인, 소속감, 정체감 및 안전을 의미 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욕구가 사회 정서적 보조, 도구적 보조, 정신적 보조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Thoits(1986)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애정, 승인, 소속,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둘째, 지지적 행동유형이란 사회적 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지적 행동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기능을 반영한다. 다차원적 유형을 연구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House(1981)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정의 하였고, Cohen과 Hoberman(1983)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최근 MOS(Medical Outcomes Study) 연구팀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구체적 지지, 사회적 지지, 애정적 지지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원숙, 1995. p85).

셋째, 사회적 지지를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Gottlieb(1983)와 Lin(1986)은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특성으로 보되, 이를 제공하는 맥락으로서 구조적 특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기능적 특성으로는 정서유지, 문제해결, 개인적 영향력, 환경개입의 지지적 행동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조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참여, 통합, 사회적 망에서의 상호작용, 친밀한 동료관계에서 자원への 접근성으로 설정하였으며(이원숙, 1995, p85-86), 박지원은 사회적 지지 망과 지지 형태, 그리고 지지욕구까지 포함시켰다.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일부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aplan(1974)은 사회적 지지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집합체라고 보았으며, Cobb(1996)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며, 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 의사전달과 상호외부의 망조직(Network)에 들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하면서 위기 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성열 , 2000, 재인용).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사회적 지지 개념의 분류

개념적 접근	특성	학자
기본적 욕구충족	·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반영.	Torsdorf, Kaplan et al. Thoits, Weiss 등
지지적 행동유형	· 사회적 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지적 행동유형을 통해 접근. · 다차원적 기능을 반영.	Caplan, Cohen & Hoberman, House, Kahn & Antonucci, MOS팀 등
기능적 · 구조적 특성	·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	Gottlieb, Lin, 박지원 등

자료: 이원숙(1995),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 실천적 접근.
서울, 홍익 제. 81-87 재구성

사회적 지지를 다요인적 유형으로 정의한 연구자들은 이를 4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House(1981)는 ①존중, 신뢰, 애정, 관심들을 경험하는 ‘정서적지지’ ②자기 평가에 관련된 정보로써 긍정적 반응, 사회적 비교를 하는 ‘평가적 지지’ ③환경에 관한 조언, 제언, 명령,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④물품, 재정적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도구적 지지’로 나누었다.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가진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 정의하고 이를 ①여가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는 ‘소속감 지지’ ②경제적 도움이나 물질적 자원에 대한 도움의 출처가 있는 ‘유형적 지지(물질적 지지)’ ③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보나 충고 등을 말하는 ‘평가적 지지’ ④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자기존중감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현진, 2009, 재인용).

Nolten(1994)은 ①신뢰, 감정이입, 사랑 등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②충고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③재정적으로 혹은 시간이나 기술을 통해 도움을 주는 ‘물질적 지

지' ④평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Antonucci(1980)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 관계적 협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애정은 좋아함, 동경, 존경, 사랑의 표현을, 긍정은 어떤 행동이나 진술에 대한 동의 또는 알고 있음의 표현을, 도움은 물건, 돈, 정보, 시간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거래를 표현하는 것이라 했다(한수현, 2003,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박지원(1985)이 ①존경, 애정, 신뢰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 ②개인의 상황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③돈이나 물건 등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물질적 지지' ④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고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가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다시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상황 중심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정보적·물질적·자존감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 정도에 대한 지각정도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 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응을 예언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며, 지각된 지지가 대처의 효능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 Waltz, 1991: 조명실, 2006, 재인용).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제공원과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Thoits(1982)는 사회적으로 제공받는 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누구에게서 제공된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제공원이 지지의 절대적인 양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

는 제공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정성인(1998)은 사회적 지지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이라 하였고, 최성열(2001)은 부모, 친척을 포함한 형제, 친구, 교사 등을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애정이나 신뢰, 정보, 물질적 원조, 자기보고 등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수민(1987)은 청소년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교사, 이웃 등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세계 속에서 생활하며 이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개인에게 이러한 지지를 제공해 주는 지지원으로, Hamburg(1967)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Cobb(1976)는 가족 구성원과 직장 동료들, Kaplan(1977)은 배우자와 전문가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다. Thoits(1982) 등은 부모, 배우자, 친구, 친척, 동료, 성직자, 전문가 등이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으며, Wortman(1987)은 Thoits(1982)가 말한 영향력 있는 지지원 외에 상담사, 의사, 이웃, 등을 첨가 시키며 거의 비슷하게 보았다(김완수, 2005, 재인용). Furman과 Buhrmester(198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들로 가족, 친구, 교사 등을 들었다(진은아, 2007, 재인용).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 아버지, 친구,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이 개인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간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를 ①관심, 사랑 그리고 신뢰 등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②조언을 해 주거나 정보를 주는 ‘정보적 지지’ ③시간적·재정적 또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물질적 지지’ ④잘못된 행위에 대한 충고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의 다요인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고등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인 사회적 지지원을 부모(어머니, 아버지), 친구로 선정하여 사회적 지지를 그들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7)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발전되어온 것으로,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여러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Bandura(1977)는 이론개발 초기에 자기효능감을 수준(level), 강도(strength), 일반성(generality)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과제-특수적 차원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능력인지로 볼 수 있으며, 행동의 선택·수행·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행동 및 행동 변화의 주요 매개변인으로 보았으며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는 반면, 특정 과제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어진다고 보았다(Bandura, 1997). 그리고 개인의 성격구조 특징이나 요소가 아니라 인성의 역동적 양상으로 보았으며, 개인-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독특한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성 또는 성격구조가 쉽게 변한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학습동기 영역에서 그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Pintrich & Schunk, 1995; 이은경, 2001, 재인용), 최근에는 진로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직업적 행동과 진로상담에 자기효능감의 잠재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Lent, Hackett, Betz; 남미숙, 1998, 재인용).

Kanfer(1990)는 자기효능감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활동들을 조직,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복잡한 인지적 판단(박은영, 1999, 재인용)이라 정의하였으며, Meyer와 Gellathly(1988)는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 신념이라 하였다(박은영, 1999, 재인용). 안순자(1997)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김의철·박영신(1999)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며, 스스로를 동기화 시키고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박은영(1999)은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하

고, 개인이 처한 상황, 개인이 취하는 행동,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 판단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윤미애·오윤자(2005)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했으며, Bandura(1982)와 Schunk(1984)는 효능에 대한 자기 지각은 미래의 행위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은영(1999)은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개인이 어떤 환경과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특정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처리해 나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면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했다(Bandura, 1997; 박은영, 1999, 재인용)

둘째,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내재적 동기원으로 자기효능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정한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Bandura & Schunk, 1981; Bandura & Inouye, 1978; 박은영, 1999, 재인용)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행동 뿐 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Diclemente, 1981; 정순애, 1998; 박은영, 1999, 재인용).

넷째, 행동패턴 외에 인간의 정서와 사고유형에도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의 필요에 적절히 대처하며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장벽에 직면했을 때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끈기 있게 도전하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Bandura, 1982; 권대훈, 1988; 박은영, 1999, 재인용).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인간행동을 설명하는데 개인의 행동양식,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성취동기,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 등이 달라지게 되며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생활지도 면에서 정말 중요하다(안순자, 1997).

Bandura(1977)는 효능기대감(self-efficacy expectation)에서 결과기대감(outcome expectation)을 분리시켜 구별하면서 결과기대감이 특정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신념이라면, 효능기대감은 어떤 상황에서 특정행동을 잘 수행할 능력 또는 가능성에 대한 자기인식과 관련 된다고 했으며, 일반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효능기대감이 결과기대감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Sharf, 1996).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

는 효능기대감은 행동의 시작 뿐 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지속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효능기대감의 인지를 현정환(1993)은 자기효능감이라고 불렀으며, 효능성에 대한 기대는 성취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노력을 지속케 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래 지탱하게 하는 끈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Sherer et al (1982) 등은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했으며, Bandura(1986)는 자기조절 효능감을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 정의했다.

박지은(2005)은 효능성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고 클수록 과제수행 시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이고 끈기 있게 행동한다고 했으며, 효능성에 대한 기대는 성취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투여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보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했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결과에 대한 인식인, 결과기대는 행동의 시작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지속에도 영향을 주어 효능기대 없이는 행동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노혜경, 2004).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결과기대감은 행동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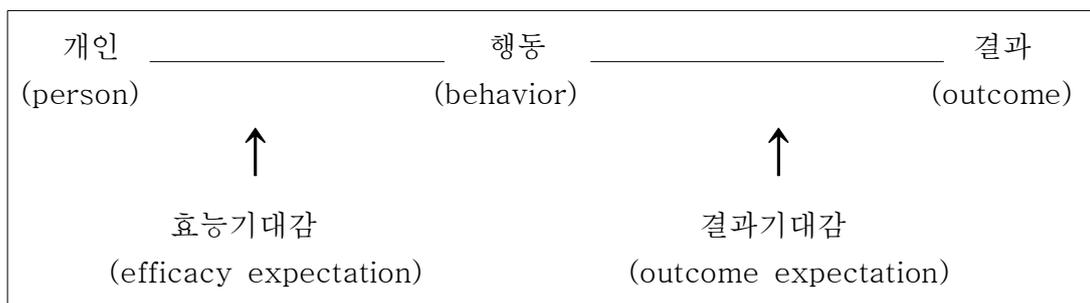


그림 1.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의 차이 (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 기능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과정으로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 동기적 과정(motivation process), 정서적 과정(affective process), 선택적 과정(selective process)이 있으며, 이러한 네 개의 과정들은 인간행동의 지속적인 조

절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정의했다(김의철, 박영신, 1999).

Bandura(1977)는 이러한 효능감을 개인이나 집단의 성공능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라고 보고 사람들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네 가지 정보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공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이다.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 성공경험은 성공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상황을 촉진·고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이다.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델링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에 대한 예측성과 통제성을 제공한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보는 것은 자신 역시 유사한 활동을 완수하기 위한 능력을 지녔다는 관찰자의 신념을 고양시(Bandura, 1986; Schunk, 1987). 반면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관찰자의 판단을 낮추고 동기 수준을 약화시킨다(Bandura & Inouye, 1986).

셋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이다. 부여된 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언어적으로 설득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회의에 빠지거나 개인적 결함에 몰두하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동기화되고 그 노력을 지속하기 쉽다(Litt, 1988; Schunk, 1989).

넷째, 신체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states)이다.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성향을 줄이며, 신체 상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Bandura(1978)는 자기효능감이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와 같은 네 가지 요소의 양이나 질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강하게 또는 약하게 형성되며, 네 가지 정보적 근원 중에 성공경험이 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미진, 1999. 재인용). 정보원들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의 선택과 마침에 있어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경주하며 지속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서적인 반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8; Bandura, Adams, Hardy, & Howells, 1980).

다음 그림 2는 자기효능감의 정보원과 그 기능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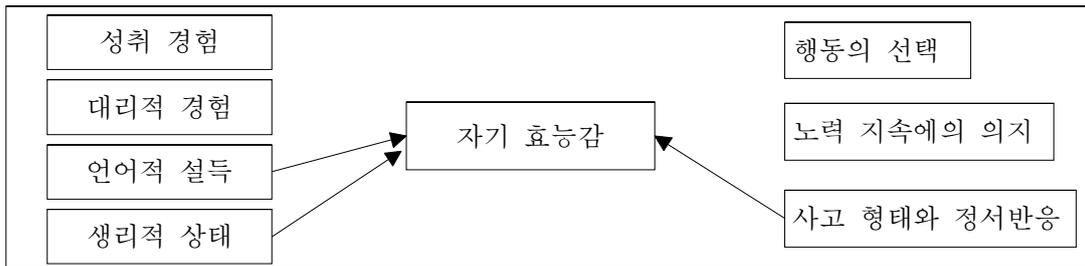


그림 2. 자기효능감의 정보원과 그 기능들과의 관계 (Bandura, 1977)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역할이 다방면에서 전달되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로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켜감에 따라 아동기 때 보다 역할에 따른 책임감이 증가하며,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효능감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원적인 친구 관계 형성에 있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Wheeler, 1982; Connolly, 1989).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을 예언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자기효능감 이론을 처음으로 성취 행동, 진로결정 등 진로발달모델에 주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김아영(1997)은 학업적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요인은 개인의 수행수준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했으나,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은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은경(2001)은 이처럼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작업도 특정 맥락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행동과 수행을 필요로 하므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늘날 다양하게 변화되어가는 직업과 관련해, 진로선택 및 진로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간심리 특성의 하나인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심리적·정서적·경제적 그리고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믿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3. 진로준비행동

지금까지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진로성숙이나 진로정체감 등 개인의 인지, 태도의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킨 반면 행동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김봉환(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탐구영역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연구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한 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봉환(1997)이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을 설정하고 연구하기 이전까지 실제적인 행위차원인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변인 중 하나인 진로탐색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을 뿐이다.

김계현(1997)은 진로발달 및 진로상담 이론에서 의사결정, 진로정체감, 진로탐색 등 인지적 요소 외에도 진로에 있어서 취업행동이라는 행동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요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로준비행동의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자기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받는다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의논을 하는 등, 취업과 관련된 일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둘째, 취업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실시하는 시험과목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원서 및 이력서 등 면접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지칭하며, 이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예로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달성의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진로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 중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인 진로탐색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Berlyne(1996)은 진로탐색의 의미를 직업, 직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과 인식으로 규정하여, 탐색의 과정에서 탐색의 장소, 탐색의 방법, 탐색의 양 및 탐색의 초점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보았으며, 정보의 원천으로써 ‘환경’과 ‘자기 자신’을

언급하였는데, 이 같은 관점은 진로준비행동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Berlyne와 Heath(1984)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그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별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기대(expectedness), 준비(preparedness)이다. 특히 '준비'는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적인 노력 등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 김봉환(1997)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일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준비하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행동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왔던 인지 혹은 정서의 차원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보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행동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로준비행동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수집활동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인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은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인 현황, 전망, 취업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직업 환경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이는 자신이 목표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행동이다. 즉 각 직업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포함하여 자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구비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이다.

셋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이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의미한다.

Stumpf(1983) 등은 진로탐색활동의 개념을,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한 뒤,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외적인 탐색활동으로 정의

하였으며, 서진숙(1998)은 진로탐색행동이 정보수집활동과 유사하게 쓰이고 있지만 진로탐색행동을 정보수집활동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개인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탐색하는 모든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박완성(2003)은 고등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김봉환(1997)과 최동선(2003)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연구에서 박완성(2003)과 박현주(2005)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공업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희(2008)의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평균이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한 김수리(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김희진(2001)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선아(2001)는 불안, 성취동기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불안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하지 않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성취동기와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성취동기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최현정(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불안과 성취동기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기학, 1997; 안혜경, 2008)가 있는 반면에,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김희진, 2001; 박완성, 2003; 박현주, 2005)도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공통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일반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보고, 탐색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의 행동적 차원인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진로발달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86)의 연구를 필두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로써, 이러한 자기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들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성장되어 가기도 한다(김단희, 2002).

오선옥(2001)은 가정과 학교는 고등학생들에게 지적,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사회로부터 균형 잡힌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정의하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환경 중에 물적 환경보다 인적구성원 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의 심리적 환경이 성격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원과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상관이 있으며 성격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arrera(1986)는 가족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즉 사랑과 수용, 안정적인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겪게 되는 행동장애를 막아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준다(박지은, 2006, 재인용)고 하였으며, 부모님, 선생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킨다(진은아, 2003, 재인용)고 했다.

Holahan(1987)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평가한 결과,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이경희, 2001, 재인용)고 보고했다. Coopersmith(1976)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모의 관심과 수용의 정도라고 했으며,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김기원, 박현인, 2001, 재인용). 이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자기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윤미경(1997)은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어머니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윤미숙(1999) 역시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그들의 적응과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주고, 또래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Hamburg(1987)는 개인에게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에 대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Hoffman(1988) 등은 부모와 동료의 지지가 사춘기 자녀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고, Juang과 Silbereisen(1999)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이득연, 2004, 재인용).

신혜정(2005)은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환경에서의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면 자기효능감을 더 높일 수 있고 상황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Ryan(1996) 등은 애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에서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더 의미 있게 설명한다고 보고하면서 자녀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지지적이며 협조적인 어머니에 대한 경험은 개인에게 직면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유지건, 2004, 재인용).

박영신·김의철·민병기(2002)의 공동연구에서도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원 중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원희정(2006) 역시 청소년들이 칭찬, 소질 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등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되는 결정적 시기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은 학업적 성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우울을 겪거나 자신의 삶을 비판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지지원들을 발견하고 파악해서, 가정이나 학교 또는 상담의 장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 또는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지만, 진로결정과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진로 미결정과 진로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김봉환, 1997). 이처럼 진로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Ferry, Found, & Smith, 2000). 진로에 대한 외적인 이유로 사회적 지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진로결정에서 가족의 의미 있는 지지 등이 새로운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Chope, 2001).

개인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위환경의 지원 또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옥경희, 2001)도 있다. 김미영(1995)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격려해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으며, Birth(1998)는 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손승희(1999)는 진로탐색행동을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진로를 선택한 후의 준비행동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보았으며 진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Schultheiss, Kress, & Manzi(2001)는 미국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사

회적 제공원들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정서지지는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정보지지와 존중지지는 진로결정을 탐색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진로발달의 유효한(instrumental) 능력에 확신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직업선택의 관점이 변하며, 학문적 상황(academic circle)과 산업적 환경(business circle)이 달라진다(Tatsno, 2002)고 보고하였다. 송채영(2003)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적응이라든지 스트레스 대처요령, 진로문제 등,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미순(1999)은 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자신들의 능력과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수준 또한 높아진다고 했으며, Burk(1995) 등은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면서 교사는 진로발달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친구관계는 진로발달 전체 단계에 걸쳐 유용하다고 했다(윤혜정, 1993). 부모는 자녀들의 진로관련 의사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는 가치를 사회화시키는 자(Value Socializers)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Astim, 1984), 자녀가 학업적·직업적으로 유능한 존재라는 본인의 자기 자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대를 사회화(Expectancy Socializers)시키는 자이다(Eccles, 1994).

사회인지 진로이론(Lent, Brown & Hactett, 2000)에 따르면, 배경요인인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학습경험을 통하여 적절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흥미, 진로관련의지, 진로관련목표의 형성에 기여한다. 부모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녀들의 성격 및 사회적 적응능력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발달(Gottfredson, 1981)과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며(Goldenberg & Goldenberg, 2000), 더불어 자녀들에게 특정분야의 직업을 선호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진로발달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Hortimer & London, 1984).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광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지지와 자

아효능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여 주는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으로 직업정보를 찾고,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함양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승민(2003)은 가족이 지지하는 목표와 가족체계의 유지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수리(2004)는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보다 높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지지를 보다 많이 지각한다는 뜻으로, 부모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Tuner & Lapan, 2002; Tuner et al, 2003)의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지지는 개인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시키고 지속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작용되는 일종의 추진력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러 장애들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힘이다. 자기효능감과 인간이 행하는 행동 간의 밀접한 관계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을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대감으로 본다면 진로성숙 및 진로선택의 시도와 실제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김현숙, 2001),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발달과 직업선택의 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진로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으며, 몇몇 후속 연구들은 실증적으로 그 사실을 지지해왔다. 또한 인간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데 자기효능감이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시켜,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Hackett와 Betz(1986)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자기 효능감”으로 개념화하기도 했다. Betz(1994)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학업적성취와 지속성, 진로선택과 진로관련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했고, 이러한 그의 의견은 다른 연구들(Hackett & Lent, Brown & Lakin, 1986; Lent, Brown & Hackett, 1994)에서도 지지되었다(이은경, 2001, 재인용).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은 미미하지만 개념상 이와 유사하거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시사하는 결과들은 몇몇 찾아볼 수 있다. Blustein(1988)은 동기화지향이 진로탐색행동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 Deci와 Ryan(1985)은 자율성지향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개인들이 자기 결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자존감(Ellis & Taylor, 1983), 진로탐색의 도구성,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Stumpf & Lockhart, 1987), 진로의사결정 효능감(Blustein, 1989) 등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애리, 1988, 재인용). 예를 들면 직업결정 상황에서 필요한 탐색적이고 계획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 지각된 효능감이 낮을수록 직업결정을 잘하지 못하였고(Betz, Klein, Taylor, 1996; Taylor & Betz, 1983) 의사결정효능감이 강할수록 직업선택과 계획을 돕는 탐색적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Blustein, 1989; 박영신, 김의철 역(2001), Bandura(1997)에서 재인용].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5.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성(性)은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제공자들에 대한 지각은 다르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구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느끼며(Buhrmester & Furman, 1987; Furman & Buhrmester, 1992; Flunter & Youniss, 1982),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제공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Furman & Buhrmester, 1992; Flunter & Youniss, 1982).

또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정도의 순서에도 성차가 나타나서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연구에서 애정적지지의 경우 여학생은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형제와 친구 순으로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남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조부모가 같은 정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유혜정(1993)은 아버지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광자(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지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그 중 일반계고교의 학생들이 부모의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한수현(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별다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논문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의 논문에서는 이와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도 있다.

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자기효능감이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주어 행동의 변화를 예측케 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이명숙, 2003).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기대가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자기효능감이 불안과 공포, 우울한 성향, 학업성취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설명하고 행동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Davis & Yates, 1982; Bandura, 1986; 김남순, 조영미, 1997; 윤용성, 1998).

남미숙(1998), 김남순·배종훈(1998), 이은경·이혜성(2002), 유소아·강경훈(2003) 등도 성별, 학업성취도, 거주지 등이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남미숙(1998)은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과의 관계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남미숙(1998), 유소아(2003)는 도시지역 학생이 농촌지역 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강경균(2006)은 농촌지역(군, 면, 읍)이 도시지역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이은경(2001)은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의 성차를 확인하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남·녀 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계획차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수준은 진로 미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의사결정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 보다 더 미 결정적이며 진로자기 효능감과 진로결정 사이에는 정적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김정은(2007)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남·녀 학생 모두 진로의사결정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빈도가 높으며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들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지은, 2006; 이명숙, 2003; 양진희, 2008),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긍정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생활 사건을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지각하거나, 무기력하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흥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Bandura, Taylor, Williams, Mefford & Barchas, 1985). 문양호·김양일(2006)은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실제적인 준비행동을 하고자 할 때 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분야에서 개인의 인지, 태도의 측면인 진로성숙이나 진로정체감 등에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행동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김계현(1995)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 이외에도 진로 혹은 취업행동이라는 행동적 요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을 김봉환(1997)이 처음으로 설정하고,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가지 탐구영역으로서 개념화가 시도되었는데, 그 중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 불안,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김희진(1997, 재인용)은 진로준비행동이란 인지적차원이 아닌 개인의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정적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이라고 했다.

Berlyne(1985)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변인 중 하나인 진로탐색의 의미를 직업, 직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과 인식으로 규정하였다.

Broen과 Heath(1984)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예측가능성, 기대, 준비이다. 이 중 ‘준비’는 예상되는 부정적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행동적 노력 등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김봉환, 1997),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동선(2003)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 했는데, 안혜경(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박현주(2005)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했으며, 공업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이 전체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수리, 2005; 안혜경, 2008; 장동주, 2011; 지이레, 2010; 김경희, 2011)에서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혜경(2008), 이상희(2008)는 희망이 높고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고, 김봉환(2008), 김선중(2004), 김수리(2005), 이명숙(2003) 조명실(2006) 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변인에는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있으며, 개인외적인 변인으로 부모지지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진로결정을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을, 개인 외적인 변인으로는 부모지지(어머니, 아버지)와 친구 지지를 중요한 변인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 1, 2, 3학년을 임의로 표집 하여 조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하는 30개 고등학교 중 일반인문계고교 [현재 도내 일반계고교는 20개교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전문계고교가 일반계고교로 편입되어 늘어난 숫자로 순수한 일반인문계고교¹⁾는 17개교에 총 13,16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10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각 학년에서 1~2학년씩, 총10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에 대한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과 무응답 설문지 66부를 제외한 총 934부(전체13,16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2013년 제주도내 재학생 현황: 부록참조).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빈도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비교 단위: 명(%)

변인	구분	N(%)
성별	남	445(46.6)
	여	499(53.4)
학년	1학년	351(37.6)
	2학년	291(31.2)
	3학년	292(31.2)
전체		934(100)

1) 2013년 현재 제주도내 고교는 일반고(20),특성화고(7),자율고(1),특목고(2)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문계고교라 함은 일반고(20)에 포함된 전문계고(3)를 제외한 순수 인문계고교(17)를 말 한다 (2013년7월, 제주도교육청통계자료제공).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연구 대상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지지 척도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3)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거로 윤혜정(1985)이 부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측정 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를 아버지, 어머니, 친구로 세분화하여 각 제공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하여 척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은 정서지지, 물질지지, 정보지지, 평가지지의 4개의 구성개념(construc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로 사랑, 공감적 경청, 신뢰, 관심, 이해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물질지지는 필요시에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정보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평가지지는 공정한 평가, 인격존중, 칭찬, 소질인정,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계수를 신뢰도계수로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6 이상이면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문항구성 및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어머니	아버지	친구	
하 위 요 인	정서지지	1, 2, 3, 4, 5, 6, 7	7	.929	.939	.906
	물질지지	20, 21, 22, 23, 24, 25	6	.936	.941	.901
	정보지지	14, 15, 16, 17, 18, 19	6	.910	.948	.899
	평가지지	8, 9, 10, 11, 12, 13	6	.923	.916	.884
사회적 지지 전체			25	.975	.980	.974

나.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비교적 안정성 있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예비 척도를 김아영(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아영(1997)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 아래 총 20개의 Likert식 5점 척도 문항들로 재구성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4, 5, 10, 15, 18번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 효능감 :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재를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정도.

둘째, 과제난이도 선호 : 목표설정 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

셋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은 .851로 신뢰수준을 만족할 수 있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자기조

질 효능감 .843, 과제난이도선호 .701, 자신감 .778의 cronbach's α 값이 나타나 각 개념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하 위 요 인	자신감	2, 4, 10, 11, 13, 18	6	.778
	자기조절 효능감	1, 6, 7, 8, 12, 14, 16, 17, 19, 20	10	.843
	과제난이도 선호	3, 5, 9, 15	4	.701
	자기 효능감 전체		20	.851

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행동척도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완성(2003)이 제작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Stumpf, Colarelli와 Hartman(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Kopleman, Rovenpor와 Millsap(1992)의 Job Search Behavior Index(JSBI),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 서진숙(1998)의 진로탐색행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작되었다. 총 22문항으로 네 개의 하위요인은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평점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행동: 진로나 취업에 관련 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상식을 넓히며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정보수집활동: 직업이나 학과를 찾아보거나 확정하는 활동이다.

셋째, 직업체험활동: 직업이나 학과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조언을 얻거나 체험하는 활동이다.

넷째, 취업준비활동: 직업이나 학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학원을 통해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는 활동이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진로탐색활동은 .760, 정보수집활동은 .799, 직업체험활동은 .826, 취업준비활동은 .730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전체 .880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하 위 요 인	진로탐색활동	5, 10, 12, 15, 16, 18, 19, 20,	8	.760
	정보수집활동	1, 2, 4, 9, 11	5	.799
	직업체험활동	3, 6, 7, 8, 13	5	.826
	취업준비활동	14, 17, 21, 22	4	.730
진로준비행동 전체			22	.880

3. 연구절차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 논문들과 참고문헌을 고찰하여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집단을 선정한 후, 연구자가 표집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표집대상 학교의 해당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린 후 검사 협조자로 선정된 교사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케 하였다.

총 10개 고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5일에서 4월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었고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불성실

한 답변과 무응답 설문지 66부를 제외한 총 934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 α 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대상별(어머니, 아버지, 친구)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을 다차원으로 접근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인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제공원(어머니, 아버지, 친구)이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 제공원(어머니, 아버지, 친구)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사회적 지지 제공원(어머니, 아버지, 친구)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째.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홉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연구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정량적(quantity)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연구의 경우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인과관계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목적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enny & Baron(1986)에 의해 제안된 매개회귀분석 절차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분석의 경우 완전매개(full mediation)와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on)로 구분되며,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난 경우 Sobel Z score를 통해 부분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1. 표본특성 및 측정도구 타당성과 신뢰성

가. 표본의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본 연구대상으로 934명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이 445명으로 46.6%, 여학생이 499명으로 53.4%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의 학년은 1학년 351명(37.6%), 2학년 291명(31.2%), 3학년 292명(31.2%)으로 나타났다.

표 6.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N=934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35	46.6
	여	499	53.4
학년	1학년	351	37.6
	2학년	291	31.2
	3학년	292	31.2
합계		934	100

나. 측정도구 타당성과 신뢰성

변수들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다. 타당성(validity)은 연구대상이 되는 개념의 측정문항이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체계적 오차와 반비례 한다(이근희, 2007). 요인분석의 목적은 수집된 많은 변수들을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변수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이희연 & 노승철, 2012).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분석대상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요인들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으로(신민철, 2007),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다차원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구성개념(construct)의 판별력을 검증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을 추출한다. 둘째, Varimax 직교회전 방식을 활용한다. 셋째,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인 요인을 변수로 활용한다. 고유치는 하나의 요인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변수의 분산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이희연 & 노승철, 2012), 본 연구에서도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유치 1 이상을 요인변수로 활용한다. 넷째,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5를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 공통성(communality)은 추출된 요인들이 변수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의미하며(신민철, 2007) .4를 기준으로 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요인분석은 변수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개별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한다(김계수, 2010).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을 실시했다. Nunnally(1978)는 Cronbach's α 가 .7을 초과하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6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을 기준으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다.

신뢰성 분석방법은 신뢰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이 기준이 되는 .6을 상회하는지를 확인하고, 문항들의 상관관계 table을 참고하여 항목제거 후 신뢰도 변화를 확인하여 측정문항의 추가제거 여부를 결정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연구대상 전체(N=934)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회적 지지

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표 7을 보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지지, 평가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기준인 .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지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기준인 .5를 초과하여 .666~.734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지지는 .605~.760, 정보지지는 .620~.692, 물질지지는 .652~.783 사이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물질지지 4.494, 정서지지 3.908, 평가지지 3.399, 정보지지 2.590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분산은 물질지지 24.968%, 정서지지 21.713%, 평가지지 18.884%, 정보지지 14.387%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측정문항 가운데 정서지지 2문항, 평가지지 2문항, 정보지지 3문항이 요인 부하량 기준인 0.5에 미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정서지지 .929, 평가지지 .923, 정보지지 .910, 물질지지 .936으로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6을 초과하여 각 개념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7.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공통성	Component				Cronbach's α
		1	2	3	4	
정서지지1	.796	.307	.734	.268	.302	.929
정서지지2	.799	.285	.702	.458	.122	
정서지지3	.800	.326	.725	.293	.286	
정서지지4	.818	.347	.729	.246	.325	
정서지지5	.757	.421	.666	.321	.185	
평가지지3	.824	.259	.330	.742	.313	.923
평가지지4	.799	.382	.395	.605	.362	
평가지지5	.816	.336	.289	.760	.209	
평가지지6	.834	.276	.377	.706	.341	
정보지지4	.797	.383	.309	.414	.620	.910
정보지지5	.841	.340	.359	.344	.692	
정보지지6	.849	.407	.299	.375	.673	
물질지지1	.658	.666	.252	.213	.326	.936
물질지지2	.801	.652	.361	.285	.406	
물질지지3	.801	.693	.287	.280	.400	
물질지지4	.827	.783	.278	.237	.284	
물질지지5	.800	.715	.351	.360	.186	
물질지지6	.772	.782	.309	.231	.106	
고유치		4.494	3.908	3.399	2.590	KMO
분산		24.968	21.713	18.884	14.387	.975
누적분산		24.698	46.681	65.595	79.953	

나)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표 8을 보면,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함께 정서지지, 평가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기준인 0.4를 초과하였다. 정서지지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기준인 .5를 초과하여 .542~0.778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지지는 .520~.691, 정보지지는 .610~0.718, 물질지지는 .681~0.777 사이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물질지지 5.190, 정서지지 4.689, 정보지지 4.456, 평가지지 3.031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분산은 물질지지 23.592%, 정서지지 21.313%, 정보지지 20.254%, 평가지지 13.777%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측정문항 가운데 정서지지 1문항, 평가지지 2문항이 요인 부하량 기준인 .5에 미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정서지지 .939, 평가지지 .916, 정보지지 .948, 물질지지 .941로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6을 초과하여 각 개념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8.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공통성	Component				Cronbach's α
		1	2	3	4	
정서지지1	.789	.345	.727	.286	.244	.939
정서지지2	.756	.278	.663	.272	.406	
정서지지3	.821	.289	.778	.274	.239	
정서지지4	.814	.324	.724	.375	.209	
정서지지5	.744	.358	.677	.336	.211	
정서지지6	.753	.357	.542	.426	.388	
평가지지3	.814	.310	.326	.396	.674	.916
평가지지4	.764	.405	.395	.416	.520	
평가지지5	.802	.402	.275	.293	.691	
평가지지6	.809	.337	.388	.389	.627	
정보지지1	.782	.340	.378	.635	.346	.948
정보지지2	.817	.257	.308	.718	.376	
정보지지3	.785	.322	.314	.704	.295	
정보지지4	.799	.417	.383	.635	.274	
정보지지5	.780	.432	.423	.610	.207	
정보지지6	.848	.432	.350	.691	.247	
물질지지1	.760	.748	.267	.202	.297	.941
물질지지2	.836	.717	.303	.399	.269	
물질지지3	.803	.756	.258	.305	.267	
물질지지4	.821	.777	.282	.293	.226	
물질지지5	.763	.685	.358	.304	.270	
물질지지6	.706	.681	.357	.291	.177	
고유값		5.190	4.689	4.456	3.031	KMO
분산		23.592	21.313	20.254	13.777	.980
누적분산		23.592	44.905	65.158	78.935	

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표 9를 보면, 친구의 사회적 지지 또한 정서지지, 평가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기준인 .4를 초과하였다. 정서지지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기준인 .5를 초과하여 .535~.782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지지는 .606~.696, 정보지지는 .505~.754, 물질지지는 .589~.760 사이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정서지지 4.529, 물질지지 4.275, 정보지지 3.889, 평가지지 3.284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분산은 정서지지 19.689%, 정서지지 18.587%, 정보지지 16.908%, 평가지지 14.277%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측정문항 가운데 정서지지 1문항, 평가지지 2문항이 요인 부하량 기준인 .5에 미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정서지지 .906, 평가지지 .884, 정보지지 .899, 물질지지 .901로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6을 초과하여 각 개념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9. 친구의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공통성	Component				Cronbach's α
		1	2	3	4	
정서지지1	.665	.663	.252	.180	.359	.906
정서지지2	.748	.777	.225	.253	.174	
정서지지3	.716	.782	.141	.192	.220	
정서지지4	.760	.758	.277	.301	.134	
정서지지5	.674	.603	.375	.245	.331	
정서지지6	.644	.535	.311	.291	.420	
평가지지3	.699	.332	.310	.353	.606	.884
평가지지4	.751	.379	.238	.279	.687	
평가지지5	.724	.241	.330	.345	.662	
평가지지6	.766	.266	.329	.320	.696	
정보지지1	.628	.380	.283	.505	.386	.899
정보지지2	.673	.339	.275	.631	.290	
정보지지3	.707	.230	.222	.754	.192	
정보지지4	.725	.257	.295	.716	.244	
정보지지5	.639	.195	.308	.630	.331	
정보지지6	.689	.269	.391	.633	.251	
물질지지1	.655	.112	.706	.358	.123	.901
물질지지2	.678	.376	.589	.309	.308	
물질지지3	.720	.248	.699	.297	.288	
물질지지4	.722	.193	.760	.183	.269	
물질지지5	.707	.316	.701	.251	.230	
물질지지6	.647	.332	.661	.229	.218	
고유값		4.529	4.275	3.889	3.284	KMO
분산		19.689	18.587	16.908	14.277	.974
누적분산		19.689	38.276	55.184	69.461	

2) 자기효능감

표 10을 보면, 자기효능감은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기준인 .4를 초과하였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요인부하량이 .678~.737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제난이도선호는 .600~.845, 자신감은 .622~.740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3.788, 자신감 2.938, 과제난이도선호는 1.903으로 판명되었다. 각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분산은 자기조절 효능감 23.677%, 자신감 18.364%, 과제난이도선호 11.894%로 나타났으며 총 분산은 53.935%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측정문항 가운데 자기조절 효능감 3문항, 과제난이도선호 1문항이 요인 부하량 기준을 초과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자기조절 효능감 .843, 과제난이도선호 .701, 자신감 .778의 cronbach's α 값이 나타나 각 개념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10.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공통성	Component			Cronbach's α
		1	2	3	
자기조절 효능감3	.548	.737	.043	-.061	.843
자기조절 효능감4	.538	.731	.046	-.046	
자기조절 효능감5	.466	.678	-.046	-.062	
자기조절 효능감6	.496	.700	.083	-.013	
자기조절 효능감7	.484	.686	.047	-.105	
자기조절 효능감8	.521	.712	.118	.034	
자기조절 효능감10	.576	.717	.230	-.093	
과제난이도선호1	.576	.463	-.049	.600	.701
과제난이도선호2	.721	-.026	-.204	.824	
과제난이도선호4	.758	.018	-.209	.845	
자신감1	.518	.071	.715	.040	.778
자신감2	.536	.141	.682	-.227	
자신감3	.429	.073	.641	-.114	
자신감4	.455	-.066	.669	.053	
자신감5	.568	-.080	.740	.119	
자신감6	.438	-.119	.622	.194	
고유치		3.788	2.938	1.903	KMO
분산		23.677	18.364	11.894	.851
누적분산		23.677	42.041	53.935	

3) 진로준비행동

표 11을 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취업준비활동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기준인 .4를 초과하였다. 정보수집활동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564~.84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활동은 .771~.816, 진로탐색활동은 .605~.743, 취업준비활동은 .825와 .776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진로탐색활동 2.565, 직업체험활동 2.374, 정보수집활동 2.316, 취업준비활동 1.611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분산은 진로탐색활동 19.727%, 직업체험활동 18.259%, 정보수집활동 17.812%, 취업준비활동 12.390%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측정문항 가운데 정보수집활동 1문항, 직업체험활동 2문항, 진로탐색활동 6문항은 요인 부하량 기준 미달 및 공통성 기준에 미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정보수집활동 .799, 직업체험활동 .826, 진로탐색활동 .760, 취업준비활동 .730으로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6을 초과하여 각 개념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11. 진로준비행동 요인분석

	공통성	Component				Cronbach's α
		1	2	3	4	
정보수집활동1	.745	.172	.150	.821	.136	.799
정보수집활동2	.729	.094	.095	.840	.078	
정보수집활동3	.613	.458	.203	.598	.072	
정보수집활동4	.550	.470	.093	.564	.049	
직업체험활동2	.741	.111	.803	.249	.147	.826
직업체험활동3	.710	.235	.771	.019	.246	
직업체험활동4	.769	.165	.816	.160	.225	
진로탐색활동1	.606	.721	.196	.191	-.103	.760
진로탐색활동2	.685	.743	.285	.165	.153	
진로탐색활동6	.684	.713	.296	.102	.278	
진로탐색활동8	.476	.605	-.095	.223	.225	
취업준비활동1	.794	.093	.239	.217	.825	.730
취업준비활동2	.762	.212	.339	.021	.776	
고유값		2.565	2.374	2.316	1.611	KMO
분산		19.727	18.259	17.812	12.390	.880
누적분산		19.727	37.986	55.798	68.188	

2.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간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는 기술적 통계와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했다.

아래 표 12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변수들의 표본 수는 N=934이다. 우선 기술적 통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4.267, 표준편차 .778,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83, 표준편차 .862,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3.953, 표준편차 .689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의 구성개념은 자기조절 효능감이 평균 3.412, 표준편차 .610, 자신감 평균 2.865, 표준편차 .412, 과제난이도선호 평균 2.849, 표준편차 .773으로 나타났다. 결과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개념은 정보수집활동 평균 및 표준편차가 2.946, .666, 직업체험활동 2.107, .830, 진로탐색활동 2.496, .714, 취업준비활동 2.000, .8222로 확인되었다.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살펴보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매개 및 결과변인 가운데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취업준비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자신감을 제외한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친구의 사회적 지지 또한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매개 및 결과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결과변수인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취업준비활동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신감은 과제난이도선호를 제외한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과제난이도선호는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과 상관관계의 유의성이 증명되었다.

표 12.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어머니정서 (1)	1																		
어머니평가 (2)	.814**	1																	
어머니정보 (3)	.784**	.827**	1																
어머니물질 (4)	.795**	.769**	.811**	1															
아버지정서 (5)	.576**	.526**	.513**	.497**	1														
아버지평가 (6)	.535**	.691**	.594**	.545**	.831**	1													
아버지정보 (7)	.540**	.616**	.671**	.560**	.852**	.862**	1												
아버지물질 (8)	.511**	.535**	.574**	.690**	.796**	.808**	.823**	1											
친구정서 (9)	.496**	.457**	.476**	.446**	.479**	.444**	.484**	.435**	1										
친구평가 (10)	.413**	.490**	.482**	.439**	.428**	.517**	.495**	.450**	.768**	1									
친구정보 (11)	.446**	.507**	.550**	.477**	.446**	.501**	.568**	.468**	.744**	.803**	1								
친구물질 (12)	.358**	.402**	.424**	.459**	.385**	.432**	.455**	.468**	.721**	.754**	.772**	1							
자기조절 (13)	.272**	.292**	.276**	.280**	.261**	.293**	.274**	.278**	.341**	.356**	.313**	.319**	1						
자신감 (14)	-.044	-.044	-.030	-.062	.012	.002	.031	-.001	.028	.031	.041	.029	.060	1					
과제난이도(15)	.051	.097**	.077*	.037	.079*	.103**	.082*	.062	.079*	.070*	.056	.066*	.276**	.110**	1				
정보수집 (16)	.128**	.156**	.165**	.175**	.157**	.178**	.168**	.171**	.188**	.195**	.206**	.181**	.428**	.021	.218**	1			
직업체험 (17)	.064*	.118**	.122**	.062	.092**	.109**	.125**	.068*	.111**	.120**	.164**	.158**	.253**	.027	.079*	.402**	1		
진로탐색 (18)	.078*	.111**	.104**	.095**	.126**	.163**	.138**	.128**	.151**	.198**	.189**	.162**	.426**	.038	.138**	.582**	.477**	1	
취업준비 (19)	.053	.095**	.107**	.048	.073*	.088**	.102**	.058	.102**	.098**	.160**	.168**	.211**	-.040	.043	.342**	.558**	.413**	1
평균	4.320	4.142	4.240	4.365	4.034	4.013	4.043	4.243	4.134	4.005	3.921	3.750	3.415	2.865	2.849	2.946	2.107	2.496	2.000
표준편차	0.820	0.898	0.870	0.788	0.943	0.938	0.934	0.878	0.706	0.763	0.760	0.812	0.611	0.412	0.773	0.666	0.830	0.714	0.822

N=934, * $P < .05$, ** $P < .01$

3. 가설검증

가설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독립변수의 수로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simple)과 다중(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방법은 다중선형회귀 분석으로 접근한다. 분석방법은 독립변인을 다차원으로 구성하여 분석한다.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허용 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VIF)를 제공한다. 다중공선성의 기준은 허용값 .1이하, 분산팽창인자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노형진, 2007).

회귀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에서 기준미달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에 대한 표 작성은 비표준화 회귀계수(β), 표준화 회귀계수($S \cdot \beta$), t값, F-value, R_2 , 조정된 R_2 를 정리한다.

표준화 회귀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회귀계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신민철, 2007). t값은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며, F값은 회귀식의 유의도를 판명하고, R_2 는 회귀식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가.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계

【가설 1】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은 유의미한 상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12는 변인들의 상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평가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순으로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적 지지가 가장 큰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의 각 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보수집활동이 가장 큰 정적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활동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나.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어머니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13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하위개념(sub-concept) 가운데 평가지지만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지지는 t값 2.590, 표준화된 회귀계수 .170으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9.353으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 는 .035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의미하는 허용 값은 .241 (.1 이하일 경우 의심), 분산팽창인자 4.143 (10 이상일 경우 의심)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평가지지만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표 13.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

		종속변인 : 자기효능감			다중공선성	
		β	S· β	t-value	허용값	VIF
독립변수	정서지지	-.009	-.017	-.273	.261	3.828
	평가지지	.077	.170**	2.590**	.241	4.143
	정보지지	.040	.084	1.272	.235	4.255
	물질지지	-.022	-.043	-.701	.273	3.669
F				9.353***		
R^2				.039		
R^2_{adj}				.035		
독립변수		S· β		R_2 (adj)	F-Value	
어머니사회적지지		.181***		.032	31.500***	

N=934, * $p < .05$, ** $p < .01$, *** $p < .001$

2) 아버지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14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하위 개념(sub-concept) 가운데 평가지지만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지지는 t값 2.268, 표준화된 회귀계수 .159로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11.149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 는 .042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의미하는 허용 값은 .208 (.1 이하일 경우 의심), 분산팽창인자 4.809 (10 이상일 경우 의심)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평가지지만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선행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표 14.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

		종속변인 : 자기효능감			다중공선성	
		β	$S \cdot \beta$	t-value	허용값	VIF
독립 변수	정서지지	.000	.000	.004	.227	4.413
	평가지지	.069	.159*	2.268*	.208	4.809
	정보지지	.029	.067	.891	.180	5.564
	물질지지	-.004	-.008	-.125	.270	3.700
F				11.149***		
R^2				.046		
R^2_{adj}				.042		
독립변수		$S \cdot \beta$		R^2_{adj}	F-Value	
아버지사회적지지		.207***		.042	41.604***	

N=934, * $p < .05$, ** $p < .01$, *** $p < .001$

3) 친구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15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하위개념(sub-concept) 가운데 정서지지만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지지는 t값 1.994, 표준화된 회귀계수 .108로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15.094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 는 .057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여부를 의미하는 허용 값은 .345 (.1 이하일 경우 의심), 분산팽창인자 2.899 (10 이상일 경우 의심)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지지만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선행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표 15.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관계

		종속변인 : 자기효능감			다중공선성	
		β	$S \cdot \beta$	t-value	허용 값	VIF
독립변수	정서지지	.062	.108*	1.994*	.345	2.899
	평가지지	.062	.116	1.900	.274	3.655
	정보지지	-.004	-.007	-.116	.277	3.616
	물질지지	.026	.052	.945	.335	2.989
F				15.094***		
R^2				.061		
R^2_{adj}				.057		
독립변수		$S \cdot \beta$		R^2_{adj}	F-Value	
친구사회적지지		.242***		.058	58.024***	

N=934,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표 14, 표 15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지지가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친구 지지,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순으로, 사회적 지지 제공자들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지지는 어머니의 지지보다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가 어머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김수민, 1987; Buhrmester & Furman, 1987; Furman & Buhrmester, 1985; Hunter & Younise, 1982)와 일치한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다.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3】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어머니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16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하위개념(sub-concept) 가운데 평가지지와 정보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지지는 t값 2.004, 표준화된 회귀계수 .132, 정보지지는 t값 2.304, 표준화된 회귀계수 .153으로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7.428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 는 .027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

부를 의미하는 허용 값은 평가지지 .241, 정보지지 .235, 분산팽창인자는 평가지지 4.143, 정보지지 4.25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평가지지와 정보지지가 유의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표 16.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종속변인 : 진로준비 행동			다중공선성	
		β	S· β	t-value	허용 값	VIF
독립 변수	정서지지	-.077	-.108	-1.711	.261	3.828
	평가지지	.086	.132*	2.004*	.241	4.143
	정보지지	.103	.153*	2.304*	.235	4.255
	물질지지	-.017	-.023	-.369	.273	3.669
F					7.428***	
R ²					.031	
R ² _{adj}					.027	
독립변수		S· β		R ₂ (adj)	F-Value	
어머니사회적지지		.145***		.020	20.003***	

N=934, * $p < .05$, ** $p < .01$, *** $p < .001$

2) 아버지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17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며, 하위개념(sub-concept) 가운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7.728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²는 .028로 나타났다.

표 17.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종속변인 : 진로준비 행동			다중공선성	
		β	S· β	t-value	허용값	VIF
독립 변수	정서지지	-.025	-.040	-.587	.227	4.413
	평가지지	.077	.123	1.736	.208	4.809
	정보지지	.087	.139	1.828	.180	5.564
	물질지지	-.034	-.050	-.808	.270	3.700
F				7.728***		
R ²				.032		
R ² _{adj}				.028		
독립변수		S· β		R ₂ (adj)	F-Value	
아버지사회적지지		.164***		.026	25.823***	

N=934, * $p < .05$, ** $p < .01$, *** $p < .001$

3) 친구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18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으며, 하위개념(sub-concept) 가운데 정보지지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지지는 t값 2.842, 표준화된 회귀계수 .172로 유의수준($p <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값은 13.937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²는 .053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의미하는 허용 값은 정보지지에서 .277, 분산팽창인자는 3.61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정보지지가 유의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표 18.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종속변인 : 진로준비 행동			다중공선성	
		β	S·β	t-value	허용값	VIF
독립변수	정서지지	-.021	-.026	-.470	.345	2.899
	평가지지	-.004	-.006	-.095	.274	3.655
	정보지지	.133	.172**	2.842**	.277	3.616
	물질지지	.076	.105	1.907	.335	2.989
F				13.937***		
R ²				.057		
R ² _{adj}				.053		
독립변수		S·β		R ₂ (adj)	F-Value	
친구사회적지지		.225***		.049	49.515***	

N=934, *p<.05, **p<.01, ***p<.001

표 16, 표 17, 표 18에서는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취업준비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 정보수집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수리(2004)가 중·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접적인 부모의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한수연(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준비행동, 성숙, 결정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선행연구(Buck & Bristor, 1995)에서 보여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며,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자원일 수도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 지지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4】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9는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구성개념 가운데 자기조절 효능감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을 제외한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t 값은 13.060, 표준화된 회귀계수 .405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F 값은 64.946으로 유의수준($p <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 는 .171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의미하는 허용 값은 .923 분산팽창인자는 1.08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정보수집활동’과 ‘진로탐색활동’에서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이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진로탐색활동에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조사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박미진(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19.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 관계

		종속변인 : 진로준비 행동			다중공선성	
		β	S· β	t-value	허용값	VIF
독립변수	자기조절 효능감	.389	.405***	13.060***	.923	1.083
	자신감	-.022	-.015	-.507	.987	1.013
	과제난이도 선호	.028	.037	1.176	.915	1.093
F				64.946***		
R ²				.173		
R ² _{adj}				.171		
독립변수		S· β		R ₂ (adj)	F-Value	
자기효능감		.304***		.091	94.629***	

N=934, * $p < .05$, ** $p < .01$, *** $p < .001$

마.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설 5】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구명하고자 한다. 매개회귀 분석단계는 Baron &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3단계 매개회귀과정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독립변인 X와 매개변인 M의 직접효과를 확인한다. 두번째 단계는 독립변수 X와 결과변수 Y의 직접효과를 확인한다. 세번째 단계는 독립변수 X와 매개변수 M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매개회귀 효과의 검증방법은 1단계와 2단계에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

한 경우를 완전매개 효과로 분류하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부분매개효과로 구분한다. 매개회귀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다.

$$1\text{단계} : M(\text{매개변수}) = i_3 + aX(\text{독립변수}) + e_3$$

$$2\text{단계} : Y(\text{결과변수}) = i_1 + cX(\text{독립변수}) + e_1$$

$$3\text{단계} : Y(\text{결과변수}) = i_2 + c'X(\text{독립변수}) + bM(\text{매개변수}) + e_2$$

$$4\text{단계} : \text{Sobel } Z = \frac{ab}{(b^2 SE_a^2 + a^2 SE_b^2)}$$

매개효과에 대한 3단계 분석을 시행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매개효과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로 구분한다(노형진, 2011). 완전매개의 경우 매개효과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부분매개의 경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이 요구된다. 부분매개 효과의 검증방법으로 Sobel 검증, Goodman 검증, Arioan 검증, 그리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등이 활용된다(노형진, 2011).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 Sobel 검증을 통해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1) 어머니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0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어머니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가 유의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181로 유의수준($p <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력 관계는 유의수준($p <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계수는 .145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Sobel Z 통계량이 4.769로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p <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단계	독립변인	S·β	R ₂ (adj)	F-Value	종속변인
1단계 (독립→매개변인)	어머니 사회적 지지	.181***	.032	31.500***	자기효능감
2단계 (독립→종속변인)	어머니 사회적 지지	.145***	.020	20.003***	진로준비 행동
3단계 (독립/매개→종속변인)	어머니 사회적 지지	.093**	.099	52.044***	진로준비 행동
	자기 효능감	.287***			
Sobel Z 통계량	4.769***	회귀계수(a) : .095		회귀계수(b) : .412	
		오차(a) : .017		오차(b) : .045	

N=934, * $p < .05$, ** $p < .01$, *** $p < .001$

2) 아버지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1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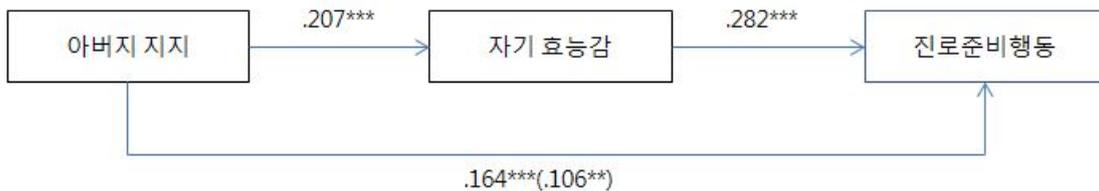


그림 4. 아버지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가 유의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07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력 관계는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계수는 .164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Sobel Z 통계량이 5.246으로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1.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단계	독립변인	S·β	R ₂ (adj)	F-Value	종속변인
1단계 (독립→매개변인)	아버지 사회적 지지	.207***	.042	41.604***	자기효능감
2단계 (독립→종속변인)	아버지 사회적 지지	.164***	.026	25.823***	진로준비 행동
3단계 (독립/매개→종속변인)	아버지 사회적 지지	.106**	.101	53.407***	진로준비 행동
	자기 효능감	.282***			
Sobel Z 통계량	5.246***	회귀계수(a) : .098		회귀계수(b) : .405	
		오차(a) : .015		오차(b) : .046	

N=934, * $p < .05$, ** $p < .01$, *** $p < .001$

3) 친구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2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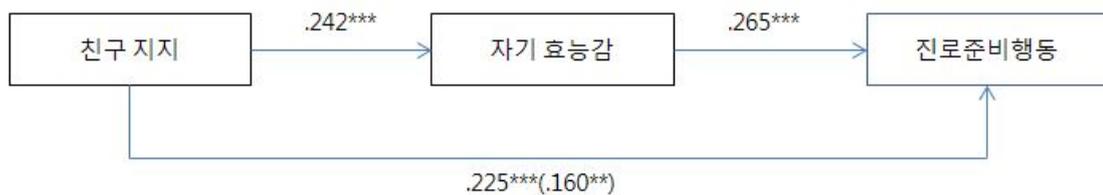


그림 5. 친구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가 유의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42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력 관계는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계수는 .225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Sobel Z 통계량이 5.576으로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22.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단계	독립변인	S·β	R ₂ (adj)	F-Value	종속변인
1단계 (독립→매개변인)	친구 사회적 지지	.242***	.058	58.024***	자기효능감
2단계 (독립→종속변인)	친구 사회적 지지	.225***	.049	49.515***	진로준비 행동
3단계 (독립/매개→종속변인)	친구 사회적 지지	.160**	.115	61.502***	진로준비 행동
	자기 효능감	.265***			
Sobel Z 통계량	5.576***	회귀계수(a) : .143		회귀계수(b) : .382	
		오차(a) : .019		오차(b) : .046	

N=934,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3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6.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23.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단계	독립변인	S·β	R ₂ (adj)	F-Value	종속변인
1단계 (독립→매개변인)	사회적 지지	.244***	.059	59.163***	자기효능감
2단계 (독립→종속변인)	사회적 지지	.206***	.041	41.109***	진로준비 행동
3단계 (독립/매개→종속변인)	사회적 지지	.140***	.109	58.006***	진로준비 행동
	자기 효능감	.270***			
Sobel Z 통계량	5.604***	회귀계수(a) : .150		회귀계수(b) : .388	
		오차(a) : .020		오차(b) : .046	

* $p < .05$, ** $p < .01$, *** $p < 0.001$

표 20, 표 21, 표 22, 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각 제공원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일련의 과정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로써 ‘사회적지지 및 진로준비 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연구의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Norbeck(1981)과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수준에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아버지와 교사의 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한다는 윤혜정(1993),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옥경희(2001), 그리고 부모의 지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이광자(2005)의 선행연구는 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한 정인숙(1993)의 보고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지은(2005)의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고 나타난 결과와는 불일치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Hackett와 Lent(1987)의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와, 홍혜영(1995)의 성별로 본 자기효능감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손승희(1999)의 진로탐색 및 진로를 선택한 후 준비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진로발달의 촉진을 위해서 인간행동의 근간이 되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년에 따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어떻게 나타

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의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진로발달의 유효한 (instrumental) 능력에 확신을 갖게 하여(Schultheiss, Kress & Manzi, 2001),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행동, 진로성숙, 결정수준을 높여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선행연구(Buck & Bristor, 1995)에서 보여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며,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자원일 수도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세 변인은 모두 정적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이경희(2001), 허행식(2004), 박지은(2005), 김도연(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나타난 유의한 상관관계는 송재영(2003), 한수연(2003), 김수리(2004)의 연구결과와 부분일치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박미진(1999), 김현숙(2001), 이은경(2001), 박완성(2003), 박지원(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며, Schultheiss et al(2001) 등이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탐색과 결정에서 특히 부모, 친구, 형제, 그 밖에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개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요인들(물질지지, 평가지지, 정서지지, 정보지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가장 크게 상관을 보인 것은 평가적지지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인정 등, 주위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에 따라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가,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외부로부터 받는 진정어린 자극과 관심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적성 등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전망, 작업현황,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과 같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수집활동 등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를 준비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Tatsno(2002)가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직업선택의 관점이 달라지며, 학문적 상황(academic circle)과 산업적 환경(business circle)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는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직, 간접적으로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교사나 기타 주변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수준이 높아지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진로탐색과 진로선택과정에서도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노미순(1999)의 연구도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racke(2002)는 지지적인 부모행동이 청소년의 정보탐색활동을 촉진하고,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김수리(2004)도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고등학생 자녀들의 진로행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로와 관련하여 지지함에 있어서 취업준비에 대한 내용보다는, 진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조사하고 안내하며, 진로에 대하여 독려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활동, 진로탐색활동과 밀접한 상관을 보였으며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이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진로탐색활동에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말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가적 지지와 자기조절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장벽에 부딪혔을 때,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은 자기조절 기제를 잘 활용치 못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중요한 타인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김수리(2004)가 중·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지고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진다고 한 박지은(2006)의 연구는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성숙, 결정수준이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한수연, 2003)와도 일치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평가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는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Young(1999)은 부모·자녀간의 위계적인 관계와는 달리 또래 간의 평등한 관계와 의사소통은 자신의 흥미, 자기인식,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또래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진로를 전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며, 결국 개인의 진로를 구성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각 제공원(어머니, 아버지, 친구)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개인의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인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게 생각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과 사랑, 인정 등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위기 시에 적절한 대응을 촉진시키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인식은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증가시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뿐 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향상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증진토록 하여,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고 진

로준비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진로결정 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원을 찾아내는 일은 필요하며, 본인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있음을 인식 시켜주고 주위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각하게 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진로행동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취약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그리고 친숙하게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직업을 체험해 보게 하는 등, 진로준비행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가설 검증과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라는 결과에서 시사해 주는 것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유무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에 앞서 자신이 자신의 주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모,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가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물질을 제공해 주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줄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되며, 진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 부모, 친구 등 사회적 지지 제공원들의 관심어린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며, 고등학생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준비행동 전체와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 간에는 평가적 지지와 자기조절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등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지원체계가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조절 기제를 잘 적응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향상시켜,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박완성(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학년비교를 해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경쟁적인 교육환경 등, 진학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에 대한 부모 및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와 관심이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됨을 잘 보여준 것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등, 고등학생들이 진로발달 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증진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인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준비행동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사회적지지(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관심 등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이를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짐을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가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준비를 촉진시켜, 진로준비행동이 증진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능력을 증대시켜, 어떠한 일의 수행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난관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행동에 임하게 하고 헌신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긍정적이며 체계적, 능률적으로 행동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 알맞은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언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진로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 필요한 점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된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인구학적변인 및 학교계열(ex:일반고, 특성화고)등에 따라 진로준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채택한 검사도구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한 것이어서, 분석에 필요한 하위요인에 대한 세분화가 덜 되어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도의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급변하는 현실에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복잡해진 직업의 세계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현장에서도 사회경제적, 직업요구조건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검사도구의 개발과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식을 사용 하였다. 조사연구 시 질문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심층적인 면접이나 관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경균(2006). **중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독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미(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혜선(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진로성숙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선미(2009). **여대생이 지각한 희망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영락(2010).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2009). **사회적 지지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경희(2011). **공업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단희(2002). **부모애착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연(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1995).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남(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1997).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미간행본.
- 김완수(200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 박영신(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11-42. **문화심리학총서 2, 교육과학사**.
- 김정희 · 이장호(1986). **사회적 지지 척도 제작을 위한 예비적 연구**. **행동과학연구**, 8, 143-153.
- 김정애(1994). **사회적 지지, 자기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행수(2010).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0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경미(2004). **고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서 표현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2008). **청년층 직업프로그램(cap)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자기평가에 미치는 성별, 연령별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1999).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2011). **부모지지,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2008).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의 성별, 연령별 차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 김의철 · 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교육심리연구*. Vol 16, No 2 pp 63-92
- 박완성(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19-141
- 박완성(2003). **고등학생의 진로자아효능감 ·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두(2008).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관계 모형 검증: 집단 자존감과 개인 자존감의 매개 역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1999).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2005).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채(2004).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일 · 김기현(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

- 계. 계명문화대학 계명연구 논총, 19, 7-23.
- 배고운(200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남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명숙(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재영(2003).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란(2006).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심(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2005).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옥(2001). **초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경(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미(2005). **사회적 지지 지각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경(199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

- 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혜·오윤자(2005). 아버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4(1), p.115-129
- 윤미숙(2000). **고등학생의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명지대
 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성(1998a). 자기효능감의 분석적 고찰과 과제, 인간발달과 적응. **충남대
 학교 출판부**, 159-182.
- 윤운성(1998b). 자기효능감과 그 교육적 시사, **교육연구 14집**, 공주대학교육연
 구소, 83-108.
- 이광자(2005)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연구: 일반계, 산업정보
 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아(1997).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1).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
 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
 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만(2010). **충북지역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 자녀간의 의사소통
 과 진로자기효능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2001). **시설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200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0(3), 571-586
- 이제경(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 송재영(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5(2), 393-407.
- 이현영(2008). 중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의(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유진(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200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애(1998).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이레(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경(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의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은아(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열(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성(2009).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성현(2005). 부모,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수현(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옥(2004). 여대생이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행식(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지수(2010).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 법문사.
- 이군희(2007),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법문사.
- 노형진(2007), SPSS에 의한 다변량 데이터 통계분석, 효산.
- 손충기 · 백영균 · 박정환 · 문창배(2000). 내가 하는 통계분석 SPSS. 학지사.
- 송지준(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문수백(2003,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연구방법의 실제, 학지사.
- Bandura, A.(1982). The Self-efficacy theor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ndura, A., Barbaranelli, C., Vittorio-Caparara, G., & Pastorelli, C.(2001).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87-206.
- Betz, N. E., & Hackett,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etz, N. E., & Luzzo, D. A.(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3-328.
- Brown, S. D., Fischer, A. R., Good, G. E., Nord, D., & Solberg, V. S.(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Brown, S. D., & Lent, R. W.(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Buhrmester, D. & Furman. W.(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4)**. 1101-1113.
- Caplan, G., & Killilea, M.(1976). *Support and mutual help*. New York: Grune and Stratton.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nd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 Furman, W., & Burma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ckett, G., & Lent, F. W.(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Hackett, G., & Lent, R. W.(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areer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419-451). New York: Wiley.
- House, J. S.(1981). Social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 Kaplan, B. H., J. C. Cassel, & S. Gore,(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47-4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Meyer, J. P., & Gellathly, I. R.(1988). Perceived performance norm as a mediator in the effect of assigned goal on personal goal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3*. 410-420.
- Norbeck, J. S.(1981). Social support: A model for clinical research and applicati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4)*, 43-59.
- Osipow, S. H., Carnney, G. C., & Barac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197-261. Jossey-Bass.
- Taylor, K. M. & Betz, N.(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hoits,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English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e, Hyang-Ju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Directed by Kim, Seo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of effective career counseling by gras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analyzi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And for this, subjects for inquiry were set as follow:

The subjects for inquiry set in regard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

Subject for inquiry 1.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Mothers, fathers, and friends) and self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ubject for inquiry 2. Does social support(Mothers, fathers, and friends)

have any effect on self efficacy?

Subject for inquiry 3. Does social support(Mothers, fathers, and friends) have any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ubject for inquiry 4. Does self-efficacy have any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ubject for inquiry 5. Does self efficacy play the mediating role in social support(Mothers, fathers, and friend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research subjects to carry out these subjects for inquiry were the total 934 persons of male(435 persons) and female (499 persons) students in 10 high schools of 23 general schools located in Jeju by cluster sampling.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e study are as follow:

The scale that Yun, Hye-jeong (1985) partially amended 「social support scale」 developed by Park, Ji-won(1983) was used to measure perception levels. And the scale that Kim, A-yeong (1997) amended general self efficacy preliminary scale developed by Kim, A-yeong and Cha, Jeong-eun (1996) was used as the tool to measure self efficacy scale. The questionnaire that Park, Wan-seong (2003) mad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questionnaire' of Kim, Bong-hwan(1997) to be suitable for high school students was used as the tool to measu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statistics processing of all the collected material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ed effect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All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by utilizing the standard of 'p <.05' (significance

level).

The results gotten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social support (Mothers, fathers, and friends), self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has found to have the positive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This means that the higher perce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bout social support is, the higher self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s are. Especially,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perceived that parental support is high get to make decisions smoothly by boosting their confidence that they can solve their career matters by themselves because self efficacy is high. And parental support makes the career preparation process be smoothly done by improving compet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helping them think of functional career.

Second, social support (Mothers, fathers, and friends) has found to have the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self efficacy and especially, self control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of the sub factors of self efficacy. This shows that support from meaningful other persons has the great effect on boosting their own efficacy and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ability in carrying out tasks.

Third, social support (Mothers, fathers, and friends)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s on all the sub factor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activities to collect information, experience jobs, search career, and prepare finding employment). This means that the higher social support is, the mo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are improved. And especially, praise, encouragement, and vocational role modeling of parents help students improve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very much.

Fourth, self efficacy has the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is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 in 'self control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except 'confidence' of the sub factors of self efficacy. Especially, it has found to have the higher effect on 'the activity to collect information' and 'the activity to search career'.

Fifth, self-efficacy has found to play the significant mediating role in social support (Mothers, fathers, and friend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is means that social support (Mothers, fathers, and friends) has the direct effect on self efficacy and the in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Putting the above research results together, the higher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self efficacy are, the more students tend to select and decide their career actively and positively. That is, improvement of activ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meaningful other persons including friends, mothers, and fathers are needed. And social support of these meaningful other persons plays the important role in improvement of career preparation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as it has the effect on self efficacy which is individual and internal resources to show individual belief.

Therefore, there should be loving interest and positive help of environments around students to continue to keep social support of meaningful other persons. And systematic and strategic help needs to be provided by paying attention to 'confidence' of self efficacy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help proper counseling for individuals and treatment according to them by grasping levels to perceive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aid exactly and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effect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parental education or career counseling.

부 록

부록 1.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현황	90
부록 2.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비교	91
(평균, 표준편차)	
부록 3. 설문지	95
부록 4. 사회적지지 척도	96
부록 5. 자기효능감 척도	99
부록 6. 진로준비행동 척도	101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현황

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급편성 결과

설립 별	학교명	학과명	2013학년도 학급편성 결과 (C)									일반고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생	학급	평균	학생	학급	평균	학생	학급	평균	학생	학급	평균	
국립 (2)	사대부고		321	8	40.1	330	8	41.3	327	8	40.9	978	24	40.8	
	제주외고		515	13	39.6	530	13	40.8	539	13	41.5	1,584	39	40.6	
	중앙여고		433	11	39.4	401	10	40.1	408	10	40.8	1,242	31	40.1	
	공립 계		948	24	39.5	931	23	40.5	947	23	41.2	2,826	70	40.4	
	사립 (5)	오현고		401	10	40.1	405	10	40.5	415	10	41.5	1,221	30	40.7
	대기고		397	10	39.7	397	10	39.7	410	10	41.0	1,204	30	40.1	
	신성여고		388	10	38.8	400	10	40.0	407	10	40.7	1,195	30	39.8	
	제주여고		309	8	38.6	321	8	40.1	325	8	40.6	955	24	39.8	
	남녕고	보통과	431	11	39.2	450	11	40.9	460	11	41.8	1,341	33	40.6	
		체육과	40	1	40.0	32	1	32.0	34	1	34.0	106	3	35.3	
		소계	471	12	39.2	482	12	40.3	494	12	41.1	1,447	36	40.2	
	사립 계		1,966	50	39.3	2,005	50	40.1	2,051	50	41.0	6,022	150	40.1	
	평준화 일반고(8)		3,235	82	39.5	3,266	81	40.3	3,325	81	41.0	9,826	244	40.3	
공립 (11)	과학교		41	2	20.5	40	2	20.0	6	1	6.0	87	5	17.4	
	제주외고		105	4	26.3	100	4	25.0	98	4	24.5	303	12	25.3	
	세화고		281	8	35.1	262	8	32.8	271	8	33.9	814	24	33.9	
	애월고		209	6	34.8	165	6	27.5	171	6	28.5	545	18	30.3	
	한림고		245	7	35.0	229	7	32.7	236	7	33.7	710	21	33.8	
	서귀포고		247	7	35.3	234	7	33.4	243	7	34.7	724	21	34.5	
	서귀포여고		224	7	32.0	236	7	33.7	251	7	35.9	711	21	33.9	
	표선고		208	6	34.7	148	6	24.7	128	5	25.6	484	17	28.5	
	대정고		167	5	33.4	137	5	27.4	147	5	29.4	451	15	30.1	
	대정여고		174	5	34.8	135	5	27.0	134	5	26.8	443	15	29.5	
		보통과		104	3	34.7	78	3	26.0	73	3	24.3	255	9	28.3
		전자통신		32	1	32.0	29	1	29.0	23	1	23.0	84	3	28.0
		해양산업		32	1	32.0	27	1	27.0	30	1	30.0	89	3	29.7
		소계		168	5	33.6	134	5	26.8	126	5	25.2	428	15	28.5
		공립 계		2,069	62	33.4	1,820	62	29.4	1,811	60	30.2	5,700	184	31.0
사립 (4)	제주 중앙고	보통과	78	2	39.0	75	2	37.5	76	2	38.0	229	6	38.2	
		관광정보	140	4	35.0	146	4	36.5				286	8	35.8	
		소계	140	4	35.0	145	4	36.3				285	8	35.6	
		영주고	보통과	156	4	39.0	145	4	36.3	139	4	34.8	440	12	36.7
		소계	69	2	34.5	71	2	35.5	68	2	34.0	208	6	34.7	
		영주고	컴퓨터응용	69	2	34.5	74	2	37.0	72	2	36.0	215	6	35.8
		소계	294	8	36.8	290	8	36.3	279	8	34.9	863	24	36.0	
		남주고		245	7	35.0	239	7	34.1	252	7	36.0	736	21	35.0
		삼성여고		246	7	35.1	238	7	34.0	248	7	35.4	732	21	34.9
		사립 계		1,143	32	35.7	1,133	32	35.4	1,151	32	36.0	3,427	96	35.7
	비평준화 일반고(15)		3,212	94	34.2	2,953	94	31.4	2,962	92	32.2	9,127	280	32.6	
	평준화 + 비평준화		6,447	176	36.6	6,219	175	35.5	6,287	173	36.3	18,953	524	36.2	
공립 (2)	제주고	동물자원				36	1	36.0	37	1	37.0	73	2	36.5	
		산업기계				38	1	38.0	35	1	35.0	73	2	36.5	
		골프관리				37	1	37.0	37	1	37.0	74	2	37.0	
		관광외국어				114	3	38.0	113	3	37.7	227	6	37.8	
		관광영어과				39	1	39.0	38	1	38.0	77	2	38.5	
		관광조리				40	1	40.0	38	1	38.0	78	2	39.0	
		관광호텔				38	1	38.0	40	1	40.0	78	2	39.0	
		관광호텔경영				68	2	34.0				68	2	34.0	
		관광조리				67	2	33.5				67	2	33.5	
		관광외국어				72	2	36.0				72	2	36.0	
		관광사소통영어				64	2	32.0				64	2	32.0	
		관광스마트관광				69	2	34.5				69	2	34.5	
		소계				340	10	34.2	342	9	34.2	1,020	28	36.4	
		제주여상	디지털콘텐츠				108	3	36.0	111	3	37.0	115	3	38.3
			회계금융				71	2	35.5	74	2	37.0	78	2	39.0
		글로벌융합				108	3	36.0	111	3	37.0	118	3	39.3	
	공립 계				287	8	35.9	296	8	37.0	311	8	38.9		
	평준화 특성화고(2)				627	18	34.8	638	17	37.5	649	17	38.2		
					627	18	34.8	638	17	37.5	649	17	38.2		
공립 (5)	함덕고	인터넷				96	3	32.0	97	3	32.3	82	3	27.3	
		비즈니스				96	3	32.0	96	3	32.0	89	3	29.7	
		정보처리				192	6	32.0	193	6	32.2	171	6	28.5	
		소계				64	2	32.0	63	2	31.5	63	2	31.5	
		한림공고	건축과									60	2	30.0	
			토목과									60	2	30.0	
			기계과									57	2	28.5	
			전기과									63	2	31.5	
			전자과									59	2	29.5	
			소계				320	10	32.0	321	10	32.1	302	10	30.2
		한국 뷰티고	호텔뷰티				77	3	25.7	77	3	25.7	75	3	25.0
			자영창업 사업				77	3	25.7	60	3	20.0	59	3	19.7
			자동차과				60	2	30.0	39	2	19.5	30	1	30.0
			전자컴퓨터				49	2	24.5	43	2	21.5	42	2	21.0
			인터넷어				32	1	32.0	26	1	26.0	21	1	21.0
		디자인				218	8	27.3	168	8	21.0	152	7	21.7	
		소계				66	2	33.0	66	2	33.0	59	2	29.5	
		보건간호				67	2	33.5	63	2	31.5	57	2	28.5	
		의료정보				66	2	33.0	65	2	32.5	60	2	30.0	
		의료관광									191	6	31.8		
		경영정보									187	6	31.2		
		정보처리									191	6	31.8		
		소계				199	6	33.2	194	6	32.3	176	6	29.3	
	공립 계					1,006	33	30.5	953	33	28.9	876	32	27.4	
	비평준화 특성화고					1,006	33	30.5	953	33	28.9	876	32	27	
	평준화 + 비평준화					1,633	51	32.0	1,591	50	31.8	1,525	49	31.1	
	한계 30교					8,080	227	35.6	7,810	225	34.7	7,812	222	35.2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비교

가.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24. Scheffe 집단 간 차이 비교

N=934

종속변수	학년		평균차이	Sig.	집단 간 크기
어머니 사회적지지	1.00	2.00	.06552	.569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3.00	.10674	.224	
	2.00	1.00	-.06552	.569	
		3.00	.04123	.815	
	3.00	1.00	-.10674	.224	
		2.00	-.04123	.815	
아버지 사회적지지	1.00	2.00	-.02361	.942	1학년>3학년 2학년>3학년
		3.00	.16998*	.045	
	2.00	1.00	.02361	.942	
		3.00	.19359*	.025	
	3.00	1.00	-.16998*	.045	
		2.00	-.19359*	.025	
친구 사회적지지	1.00	2.00	.04367	.723	1학년>3학년 2학년>3학년
		3.00	.19838*	.001	
	2.00	1.00	-.04367	.723	
		3.00	.15471*	.025	
	3.00	1.00	-.19838*	.001	
		2.00	-.15471*	.025	
자기효능감	1.00	2.00	.03520	.554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3.00	.05323	.258	
	2.00	1.00	-.03520	.554	
		3.00	.01803	.867	
	3.00	1.00	-.05323	.258	
		2.00	-.01803	.867	
진로준비 행동	1.00	2.00	-.13689*	.012	3학년>1학년 2학년>1학년
		3.00	-.18667*	.000	
	2.00	1.00	.13689*	.012	
		3.00	-.04978	.587	
	3.00	1.00	.18667*	.000	
		2.00	.04978	.587	

나. 개인배경에 따른 평균비교

1) 성별에 따른 평균비교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의 몇몇 하위변인은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Norbeck(1981)과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옥경희(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윤혜정(1993)이 연구 발표한 아버지와 교사의 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와, 이광자(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인숙(1993)의 연구결과와, 이현진(2009), 한수현(2003)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영향에 대해 평균을 분석한 것을 다음 표 25에 제시하였다.

표 25. 남/여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N=934

	성별	N	Mean	SD	t	df	Sig. (2-tailed)
어머니 사회적 지지	남	435	4.2562	.81735	-.393	932	.695
	여	499	4.2763	.74345			
아버지 사회적 지지	남	435	4.0803	.90964	-.089	932	.929
	여	499	4.0853	.81934			
친구 사회적 지지	남	435	3.8531	.72028	-4.132	932	.000
	여	498	4.0396	.64878			
자기효능감	남	435	3.0458	.40711	.202	932	.840
	여	499	3.0404	.40977			
진로준비행동	남	435	2.3310	.61126	-2.739	932	.006
	여	499	2.4361	.56028			

2) 학년에 따른 평균비교

사회적 지지(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가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학년과 변수들 간의 평균비교에서 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일변량 분산분석을 통한 학년 간 평균 비교

N=934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어머니 사회적 지지	Between Groups	1.874	2	.937	1.549	.213
	Within Groups	563.409	931	.605		
	Total	565.283	933			
아버지 사회적 지지	Between Groups	6.641	2	3.320	4.501	.011
	Within Groups	686.795	931	.738		
	Total	693.436	933			
친구 사회적 지지	Between Groups	6.690	2	3.345	7.139	.001
	Within Groups	435.750	930	.469		
	Total	442.440	932			
자기효능감	Between Groups	.476	2	.238	1.429	.240
	Within Groups	155.081	931	.167		
	Total	155.557	933			
진로준비행동	Between Groups	6.099	2	3.049	9.014	.000
	Within Groups	314.954	931	.338		
	Total	321.053	933			

표 26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박완성(2003)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현주(2005)의 선행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상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학년이 주는 의미는,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한 다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보다는 부모님이나 기타 주변의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원의 지지정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진로를 준비하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님과 기타 주변의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적 지지 제공원들이 베푸는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 격려는 고등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 진로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자신감,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단순히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문항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는 칸에 (√)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솔하게 작성된 이 설문지가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하나의 답만을 선택하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향주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기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난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학년은?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 및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로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친구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한 사람으로 정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지지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머니는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2	어머니는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3	어머니는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4	어머니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5	어머니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6	어머니는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7	어머니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8	어머니는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9	어머니는	내가 그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번호	문항		지지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한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1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2	어머니는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3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4	어머니는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5	어머니는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6	어머니는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 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7	어머니는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8	어머니는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19	어머니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번호	문항		지지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어머니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21	어머니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울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22	어머니는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23	어머니는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24	어머니는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25	어머니는	내가 몸져누웠을 때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을 대신해줄 것이다.	어머니	1	2	3	4	5
	아버지는		아버지	1	2	3	4	5
	친구는		친구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때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3	나는 아주 쉬운 일 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4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5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한다.	1	2	3	4	5
7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9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	2	3	4	5
10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1	2	3	4	5
12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	2	3	4	5
13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1	2	3	4	5
14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15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1	2	3	4	5
16	어떤 일이 처음엔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 본다.	1	2	3	4	5
17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1	2	3	4	5
18	나는 위험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1	2	3	4	5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이 장래 직업과 진로를 위하여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직업이나 진로에 관하여 한 행동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과를 생각해 보고 확정했다.	1	2	3	4
2	나의 취미, 특기, 소질과 관련지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1	2	3	4
3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1	2	3	4
4	나의 성적을 체크하고 나에게 맞는 대학이나 직업을 찾아보았다.	1	2	3	4
5	대학설명회(대학 입시 설명회)등에 참석한 적이 있다.	1	2	3	4
6	그 직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얻은 적이 있다.	1	2	3	4
7	대학의 지원학과에 다니는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2	3	4
8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경험담, 조언, 충고를 들었다.	1	2	3	4
9	진학이나 직업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자세한 직업이나 취업, 관련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1	2	3	4
10	대학에서 발행하는 대학정보 소식지, 정보지, 홍보물, 책 등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	2	3	4
11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과의 특성을 알아보고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 진로정보를 얻은 적이 있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2	가고 싶은 대학에 미리 견학을 가 보았다.	1	2	3	4
13	되고자 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14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15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분야의 책이나 전문 서적, 잡지를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다.	1	2	3	4
16	흥미 있는 분야의 자료나 정보지, 팸플릿을 모으고 스크랩하고 있다.	1	2	3	4
17	내 관심분야의 전문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이나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습득했다.	1	2	3	4
18	내가 진학할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지나 팸플릿을 수집하여 검토한 적이 있다.	1	2	3	4
19	내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에서 필요한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20	영어 및 외국어 공부를 통해 언어능력을 향상 시킨다.	1	2	3	4
21	내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에 관련하여 신문의 기사를 꾸준히 찾아 본 적이 있다.	1	2	3	4
22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여 더 많은 상식을 넓히고 있다.	1	2	3	4